

# 아동의 행동문제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Problem of Child and Child's Perception of Parents-Child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주거학과

석사 鄭那瑛

부교수 李正淑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 Hanyang Univ.

Master : Nayoung Jung

Assistant Prof. : Jungsook Lee

###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as the variation of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fami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94 children of sixth graders randomly selected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their par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Empathic and supportive communication of parent-child, above all father-child was suggesting to prevent children behavior problem. It is needed to consider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according to behavior problem of character, to develop suitable coping ability. Father and mother' endeavor for opening communication. It was needed that to improve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as a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family.

\* 본 논문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가정은 한 개인의 중요한 생활장소이며, 가족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 아동은 가족과의 생활을 통하여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아동의 성격, 가치관, 행동 등이 형성됨으로 아동에게 있어 가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적인 매개체(권영래, 유안진, 1990)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양상과 내용은 가족의 성격이나 가정환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개인의 행동이나 인성특성에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아동기는 유아기와 청년기 사이의 비교적 안정되고 확실한 발달을 계속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아동기의 행동문제에 있어서는 표현과 증상이 청년기만큼 현저하지도 않고, 또 유아기처럼 급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문제의 발견에 소홀하기 쉬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기의 문제는 이 시기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사회화의 1차적 담당체인 가정의 완전치 못한 기능수행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가정환경은 아동의 행동문제 발생에 결정적이 될 수 있다(Tolan, Cromwell & Brasswell, 1986). 가족 내의 인간관계 중 특히 부모 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 작용한다.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적 교류관계로서 광범위한 경험과 책임을 공유하는 밀접한 관계이다(김오남, 1994). 부모와 자녀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상호작용적 과정인 가족의사소통은 가족원간에 기능적이고 원만한 관계가 성립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연대성과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축소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

또한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원 상호간에 지니는 심리적·정서적 유대감인 응집성과 가족원 개인이 경험하는 자율적인 적응성은 문제에 대한 빠른 인식과 해결능력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 형태와 내용에 따라 가족기능수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로, 가족원의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Galvin & Brommel, 1986).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주로 청소년 비행과 부모의 훈육방식(서경숙, 1984, 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경우는 주로 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는 연구(박은주, 1995)가 많았고, 부와 모의 독립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자녀의 행동발달 및 성격발달에 모에 못지 않게 부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시사(서경숙, 1984)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미흡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나타나는 행동문제와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향상방안 및 바람직한 가정의 역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은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에 의해 상호연결되어 가정을 구성해 간다.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정직하고 분명하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가능할 때 가족 내에서의 상호안정감이 유지되고 자녀의 바른 성격형성이 유도되지만(김정희, 1987). 이와 반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즉 불안한 가정상황에서 일어나기 쉬운 이중적 의사전달, 낮은 자아개념을 생성하는 가족의사소통구조, 자녀 행위를 평가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형태 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이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작용하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정서교육에 많은 지장을 줄 뿐 아니라(장호선, 1986) 부모 자녀간의 갈등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화되며

부모-자녀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욕구불만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다른 여러 가지 제반환경과 결합하여 아동의 행동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형태가 자녀의 사회·인지능력(고정희, 1981), 자아정체감(김정희, 1987), 문제행동(김경화, 1989) 등 정서발달과 사회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부모-자녀관계 중에서 강조되어온 것은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으로 어머니와의 대화형태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아동의 행동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녀의 행동문제를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Alexander와 그의 동료들(1973)이 연구한 결과, 비행 청소년의 가족은 명확하고 의미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간 대화능력이 부족하며, 가족간 대화는 한 사람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고 대화주제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지지적인 의사소통보다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지적하면서 자녀의 문제행동은 '가족 구성원의 혼동된 의사소통의 부산물'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동의 행동문제란 부모의 효율성있는 의사소통의 기술 부족 및 의사소통 기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특징지어지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자녀에 초점을 맞춘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각 의사소통 유형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정서발달과 사회화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아동의 행동문제와 가족의 응집 및 가족의 적응

가족은 아동의 초기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초기에 형성된 상호관계는 계속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 관계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점차 변화한다. 자녀의 행동문제와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를 보면 Clarke(1984)는 치료 중인 정신분열증 가족과 신경증적 가족은 치료경험이 없는 가족에 비하여 가족응집성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양극인 가족이 훨씬 많았으며, 특히 정신분열증 가족의 대부분은 격리되어 있다고 하였다. Carnes(1985)의 연구결과 역시 비행청소년이 있는 가족은 비행청소년이 없는 가족에 비해 가족응집이 중간형태가 훨씬 적고 양극형 형태가 훨씬 많았다. 국내연구에서 유순덕(1987)은 정상가족이 자녀와 어머니 모두의 반응에서 극단수준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전귀연(1993)은 가족 응집성 수준에서 연결 가족이 부모자녀관계에서 문제의 정도가 가장 적게 나타나며, 가족 적응성 수준에서 균형가족이 가장 건전한 부모-자녀관계를 확립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자녀의 행동문제는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 관계있음을 지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응집 및 적응이 균형을 이룰수록 자녀의 행동문제가 적다는 공통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족의 응집 및 적응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가정의 기능(가족의 응집과 가족의 적응)과 이로 인해 발생되리라 추론되는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가족의 적응

가족내 가족원들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장호선, 1986)은 가족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유지하며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조은경, 1984),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Galvin과 Brommel(1986)은 가족내의 응집성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데,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의사소통을 통해서라고 하였다. 응집성이 높은 가족은 부모-자녀간에 애정을 상당히 요구하는 반면, 응집성이 낮은 가족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간에 충분한 애정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적응성이 높은 가족은 의사소통유형을 자

주 바뀌 의사소통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닌 반면, 적응성이 낮은 가족은 배타적이며 특정 유형의 의사소통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가족의 응집이나 적응 수준이 높거나 낮을 때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반면, Barnes와 Olson(1985)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잘 유지되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 응집성·적응성·가족의 만족수준이 모두 높다고 하였고,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역기능적인 수준에서 기능적인 수준으로 이동을 쉽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이들 연구 모두가 가족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 및 적응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공통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의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 및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자들은 같은 견해를 나타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변수간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연구함에 있어 부모를 하나로 보거나 모-자녀간 만을 다룸으로써 각각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적 환경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가족의 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응집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적응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가족의 응집 및 적응에 대한 부-자녀간 의사소통, 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조사 대상과 표집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4개 초등학교 6학년 남아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1개 초등학교 35명학생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시방법은 아동용 질문지와 부모용 질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강남, 강북소재의 4개 초등학교에서 표집 아동수는 548명이었으나 질문지 항목을 빠트린 대상, 원형 핵가족이 아닌 편부모 가족을 제외시킨 결과 493명만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249명으로 50.5%를 여학생이 245명으로 49.5%를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150-199만원인 경우가 2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에 300만원인 경우가 20.8%, 200만원-249만원인 경우가 20.2%로 많이 나타나 고르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자녀구성은 남매인 경우가 50.6%로 가장 많았고, 남자형제 19.4%, 여자형제 16.1%, 독자 11.5%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은 핵가족이 79.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확대가족은 21.9%였다. 아버지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자영업이 35.6%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별 분포에서는 비취업자가 6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41.9%), 모(56.9%) 모두 고졸이 가장 많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다소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 3. 조사 도구 구성 및 내용

##### 1) 아동의 행동문제 척도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고 진단하는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사도구

는 Achenbach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이다(Holden & Ritchie, 1991). 6-18세 아동의 행동평가척도를 타당화 및 표준화 작업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한국 아동행동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평가하도록 재구성(한미현, 1993)한 것을 측정도구로 사용한다. 본 조사에 사용된 행동문제 척도는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등 5개영역을 다룬다. 각 영역별로 8문항씩으로 총 40개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Howard Barnes와 David H. Olson(1982)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가운데 자녀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중 자녀용 설문지는 2개의 하위척도로 총 40문항이며, 부-자녀와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부와 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별적으로 측정하여 2개 하위영역을 하나로 합쳐 전체 의사소통 수준으로 보았다. Likert형 5점 척도를 이용해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에 대한 반응을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주고, 폐쇄형 의사소통의 문항은 반대로 점수를 주어 의사소통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유형은 부-자녀간 의사소통과 모-자녀간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전체 평균값보다 높으면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낮으면 폐쇄형 의사소통으로 보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을 부모-개방형, 부-개방·모-폐쇄형, 부-폐쇄·모-개방형, 부모-폐쇄형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 3) 가족의 응집과 가족의 적응 척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심리적 유대를 측정하기 위한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척도는 David

H. Olson, Joyce Portner와 Richard Bell(1982)등이 제작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 ; FACES I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가족 응집 및 적응에 포함된 문항은 총 30문항으로, 이중 응집성(Cohesion)차원은 8개의 하위변인으로 정서적 유대, 경제, 연합, 시간, 공간, 친구, 의사결정, 흥미 및 오락 등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응성 차원은 6개의 하위변인으로 가족내의 권력, 협상방식,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과 관련된 14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선택하여 긍정적 질문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주었다. 그리고 부정적 질문 문항은 반대로 점수를 주었다. 개인별 취득점수의 범위는 가족의 응집인 경우 16점-80점이 되며, 가족의 적응인 경우 14점-70점이 된다.

가족의 응집정도는 전체평균  $\pm(0.5 \times \text{표준편차})$ 에 준하여 가족의 응집이 낮은 분리집단, 가족의 응집이 중간인 균형집단, 가족의 응집이 높은 속박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의 적응 척도도 전체평균  $\pm(0.5 \times \text{표준편차})$ 에 준하여 가족의 적응이 낮은 경직집단, 가족의 적응이 중간인 균형집단, 가족의 적응이 높은 혼동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족 응집과 적응성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가족의 응집 척도가 Cronbach  $\alpha$  .84, 가족의 적응 척도가 Cronbach  $\alpha$  .85로 높게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의 의사소통 형태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의사소통을 4가지 형태로 나누어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불안행동( $F=2.80, P<.05$ )에서만 아동의 행동문제 정도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표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정도

문제 유형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	빈 도	평균(표준편차)	Scheffe'	F값
전체 행동 문제	부모-개방형	67	54.7 (8.85)		2.25
	부-개방 모-폐쇄	48	55.7 (8.03)		
	부-폐쇄 모-개방	76	56.5 (9.66)		
	부모-폐쇄형	188	58.1(10.58)		
과잉 행동	부모-개방형	71	12.1 (2.73)		2.24
	부-개방 모-폐쇄	49	12.3 (2.67)		
	부-폐쇄 모-개방	79	12.8 (3.22)		
	부모-폐쇄형	198	13.1 (3.22)		
불안 행동	부모-개방형	71	11.7 (2.73)	a	2.80*
	부-개방 모-폐쇄	53	12.6 (3.27)	ab	
	부-폐쇄 모-개방	79	12.1 (2.98)	ab	
	부모-폐쇄형	192	12.9 (3.36)	b	
위축 행동	부모-개방형	73	10.1 (2.66)		.228
	부-개방 모-폐쇄	53	10.4 (2.70)		
	부-폐쇄 모-개방	78	10.2 (2.56)		
	부모-폐쇄형	195	10.3 (2.63)		
공격 행동	부모-개방형	72	9.9 (2.10)		0.11
	부-개방 모-폐쇄	53	9.8 (1.95)		
	부-폐쇄 모-개방	80	9.9 (2.12)		
	부모-폐쇄형	193	10.0 (2.03)		
미성숙 행동	부모-개방형	72	10.5 (2.32)		2.42
	부-개방 모-폐쇄	52	10.8 (1.98)		
	부-폐쇄 모-개방	80	11.4 (2.57)		
	부모-폐쇄형	193	11.7 (2.81)		

\*  $P < .05$ 

결과 불안행동에서는 부모-개방형과 부모-폐쇄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할 때 아동의 불안행동이 적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 2. 아동의 행동문제와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아동이 지각하는 3가지 가족의 응집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알기 위해 Scheffe' 검증을 하였다. 〈표 2〉를 보면 아동의

행동문제 중 위축행동( $F=5.25$ ,  $P < .01$ )과 공격행동( $F=2.52$ ,  $P < .10$ )이 가족의 응집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Scheffe' 검증 결과 위축행동의 경우 세 집단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공격행동은 분리집단과 속박집단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위축행동의 경우 균형집단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고, 공격행동은 속박집단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행동문제 특성상 환경으로부터 움츠러들고 고립된 행동을 보이는 위축행동은 가족이 분리되거나 속박된 집단보다 균형집단일 때 적게 나타나며, 파괴적이고 과격한 공격행동은 가족내의 충성과 일치강조되는 속박집단에서

〈표 2〉 가족의 응집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문제 유형	가족의 응집 유형	빈 도	평균(표준편차)	Scheffe'	F값
전체 행동문제	분 리	112	59.1 (11.1)		2.24
	균 형	22	56.8 (8.68)		
	속 박	134	56.4 (9.12)		
과잉행동	분 리	114	12.9 (2.95)		0.10
	균 형	23	13.0 (3.17)		
	속 박	139	12.8 (3.11)		
불안행동	분 리	120	12.6 (3.30)		0.38
	균 형	22	12.1 (2.33)		
	속 박	138	12.4 (2.91)		
위축행동	분 리	120	11.0 (3.46)	a	5.25*
	균 형	23	9.65 (2.05)	b	
	속 박	140	10.0 (2.40)	c	
공격행동	분 리	121	10.3 (2.30)	a	2.52+
	균 형	23	10.0 (1.80)	ab	
	속 박	140	9.7 (2.00)	b	
미성숙 행동	분 리	120	11.9 (3.18)		0.18
	균 형	23	11.5 (2.84)		
	속 박	141	11.3 (2.55)		

+ P < .10, \* P < .05

행동이 통제될 때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행동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문제와 가족의 응집유형과의 관계를 볼 때는 각 행동문제의 특성에 따라 관계를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가족의 적응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를 일원분산분석으로 알아보고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을 보면 공격행동을 제외하고 전체행동문제, 위축행동, 미성숙행동에서는 균형집단에서 가장 낮은 정도의 행동문제를 보여 가족이나 아동의 행동발달이 가족의 적응유형과 곡선적 관계를 이룬다는 선행연구(민하영, 1991; 박금희, 1986; Olson et al, 1983)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Scheffe'검증에 의하면 가족의 적응유형에서 경직집단이 혼동집단에 비해서 아동의 전체행동문제

와 공격행동이 많이 나타났고, 위축행동과 미성숙행동은 가족의 적응유형이 균형집단일 때 경직집단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전체행동문제나 공격행동의 경우 가족의 낮은 적응력에 의해 아동기 자녀의 발달적 변화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아동기 자녀의 내적 불만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위축행동과 미성숙행동의 경우 가족의 적응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나 아동의 행동발달이 가족의 적응유형과 곡선적 관계를 이룬다는 선행연구(민하영, 1991; 박금희, 1986)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가족의 적응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 부와 모가 가족의 응

〈표 3〉 가족의 적응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문제 유형	가족의 응집 유형	빈도	평균(표준편차)	Scheffe'	F값
전체 행동 문제	경직	104	59.9 (11.2)	a	4.52*
	균형	15	56.0 (9.52)	ab	
	혼동	133	55.9 (9.66)	b	
과잉행동	경직	106	12.9 (2.98)		0.09
	균형	15	12.8 (2.99)		
	혼동	135	12.7 (3.25)		
불안행동	경직	111	12.8 (3.11)		1.14
	균형	16	11.9 (3.60)		
	혼동	137	12.3 (3.04)		
위축행동	경직	112	11.1 (3.44)	a	6.70*
	균형	16	9.8 (1.96)	b	
	혼동	137	9.9 (2.09)	ab	
공격행동	경직	111	10.6 (3.36)	a	3.50*
	균형	16	10.4 (2.32)	ab	
	혼동	135	9.7 (1.99)	b	
미성숙 행동	경직	111	12.1 (3.20)	a	3.57*
	균형	16	11.1 (2.39)	b	
	혼동	136	11.2 (2.67)	ab	

\*  $P < .05$ , \*\*  $P < .01$ 

〈표 4〉 가족의 응집을 설명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 부와 모의 독립적 영향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회귀계수: $\beta$ (b)	R <sup>2</sup>
가족의 응집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32 (.22)	0.16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15 (.12)	

〈표 5〉 가족의 적응을 설명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 부와 모의 독립적 영향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회귀계수: $\beta$ (b)	R <sup>2</sup>
가족의 응집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35 (.26)	0.16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10 (.09)	

집 및 적응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와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부와 모의 의사소통 변수는 가족의 응집력, 적응력을 각각 16% 설명하고 있다. 가족의 응

집, 적응을 설명하는 부와 모의 독립적 영향력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가족의 응집 및 적응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



는 것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의 변화대처능력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아동의 행동문제를 이해하고 더불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과 그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가족의 적응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가장 관련 깊은 변수는 아동의 행동문제 중 불안행동이였다. 이는 폐쇄적, 부정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초기행동 형성을 불안정한 행동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안행동에서 부모-개방형과 부모-폐쇄형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할 때 불안행동이 적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행동발달 및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서경숙, 1984)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기 자녀의 올바른 발달을 위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어진다. 이를 위해 부모-자녀 대화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가족의 응집도와 가장 관련 깊은 변수는 아동의 행동문제 중 위축행동과 공격행동으로 나타났다. 위축행동의 경우 균형집단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고, 공격행동은 속박집단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행동문제 특성상 환경으로부터 움츠러들고 고립된 행동을 보이는 위축행동은 가족이 분리되거나 속박된 집단보다 균형집단일 때 적게 나타나며, 파괴적이고 과격한 행동은 가족내의 충성과 일치

강조되는 속박집단에서 행동이 통제될 때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적응도와 관련된 변수로는 공격행동을 제외하고 전체행동문제, 위축행동, 미성숙행동으로 균형집단에서 가장 낮은 정도의 행동문제를 보였다. 가족의 적응유형에서 경직집단이 혼동집단에 비해서 아동의 전체행동문제와 공격행동이 많이 나타났고, 위축행동과 미성숙행동은 가족의 적응유형이 균형집단일 때 경직집단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생활주기의 발달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실질적인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행동문제는 청소년이 되어서도 여러가지 행동문제로 나타나 그것이 성격으로 굳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원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아동기 자녀와의 역할관계 및 그에 따른 관계 규칙의 새로운 재조정 그리고 아동기 자녀의 발달적 변화요구를 수용하려는 가족전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보다 가족의 응집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감정이입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족간의 정서적 결속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의 응집 및 적응에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사회·정서적 관계에 반응하는 것이 도구적인 역할 수행자인 아버지로부터의 표현적 욕구충족이 더 큰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논의는 아동기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만을 부각시키는 상황에서 소홀하기 쉬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가족내 의사소통의 유형은 그 가정마다의 특유한 패턴이 형성되어 아동의 행동문제는 더욱더 고정되어 청소년의 행동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정내의 의사소통의 유형에 변화를 줄수 있고, 부모들이 아동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아동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기에 나타나는 행동문제와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 가정의 역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고정희(1981). "어머니의 대화형태와 아동의 성적 및 사회적 인지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래, 유안진(1990). "아동환경",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김경신(1994).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금희(1986).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화합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불안수준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김경신(1995).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대한가정학회지 33(5).
- 서경숙(1984). "부의 훈육방식 및 가정결속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호선(1986).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 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경(1984). "기능적인 가족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 한미현(1993).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 4-18. and 1991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of Vermont.
- Alexander, J. F. (1973). "Defensive and supportive communication in normal and deviant families", J.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vol. 40: 223-231.
- Barnes, H. & Olson, D.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Olson, D.H., MuCubbin, H.I. Barnes, H., Larson, A.,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n: Univ of Minnesota.
- Carnes, P.(1985). "Counseling sexual abusers", Minnesota: Comp Care Publications.
- Clarke, J.(1984). "The family Types and Schizophrenics, neurotics and norm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Galvin, K.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7Change-", 2nd ed.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Olson, D.H., Portner, J. & Bell, R.(1982). FACES II in Olson, D.H., Mucubbin, H.I. Barnes, H., Larson, A., Muxen, M. & Wilson, M.(1982).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n: Univ of Minnesota,
- Olson, D.H. Russel, C. & Sprenkle, D.(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vol. 22:69-83.
- Patterson, G. R., & Stouthamor-Lober, M.(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vol 55, 1299-1307.  
Tolan, P., Cromwell, R. & Brasswell, M (1986).

"Family Therapy with Delinquent: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Family Process* vol. 25: 619-650.